

태국의 커피 시장 동향과 한국 커피의 경쟁력



방콕지사

작성자_ Tanhatai Oucharoen
(탄하타이 우자런)



커피는 지구상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음료이다. 태국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커피의 유래나 재배지, 색다른 맛 추구 등 다양한 커피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방콕 출근길에서 직장인들이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출근하는 모습과 커피숍에서 원두의 원산지과 로스팅 정도를 선택하여 커피를 주문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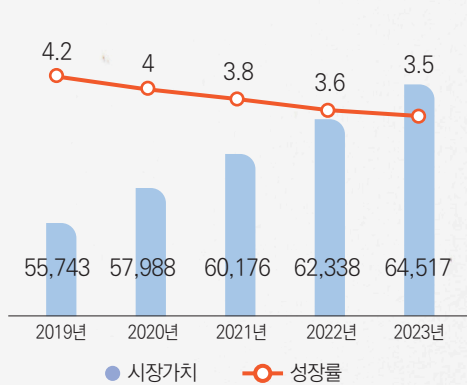
태국 커피 시장 동향

태국 커피 시장 동향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태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약 600억 바트(한화 약 2조 1,912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홈 커피 부문은 55% 이상 증가해 330억 바트(한화 약 1조 2,071억 4,000만 원) 규모, 아웃도어 커피 시장은 45% 성장한 270억 바트(한화 약 9,876억 6,000만 원) 규모로 태국 소비자들이 커피숍뿐만 아니라 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커피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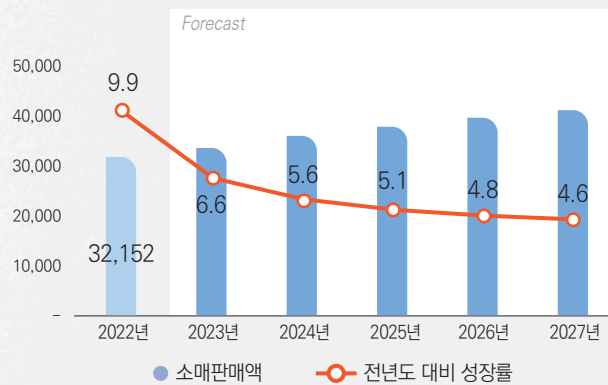
(단위: 백만(바트), %)



출처: NFI(방콕지사 편집)

태국커피 소매판매액 지수 및 전년도 대비 성장률

(단위: 백만(바트), %)



출처: Euromonitor(방콕지사 편집)

또 태국의 시장 규모가 최근 5년간 연 3.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2023년 645억바트(한화 약 2조 3,89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태국의 커피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Retail Value RSP)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태국 커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태국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 및 선호도 증가 현황을 볼 수 있다.

태국커피 소비 2023년 예측 금액



645억바트

한화
약 2조 3,890억

태국 소비자의 커피 소비 현황

Thailand Coffee Fest의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5년간 꾸준히 성장해 180잔에서 300잔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 업계의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를 비춰 향후 1인당 최대 연간 600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내 인기 커피 트렌드는 “프리미엄 커피(Premium Coffee)”와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로 프리미엄 커피 시장의 규모가 200억 바트(한화 약 7,300억 원)에 달하며 스페셜티 커피는 프리미엄 커피 시장의 10% 규모로 20억 바트(한화 약 730억 원)이나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이다. 태국 내 주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커피(Premium Coffee)와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 트렌드는 단순히 몸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에서 발전하여 커피가 주는 독특한 맛과 식감, 경험을 중시하며 본인의 선호도에 맞다면 높은 가격이라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국의 달고나 커피가 태국 현지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커피 전문점에서 한국의 달고나 커피 스타일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달고나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별한 맛과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커피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달고나 커피를 판매하는 태국 카페



국가별 연간 커피 소비량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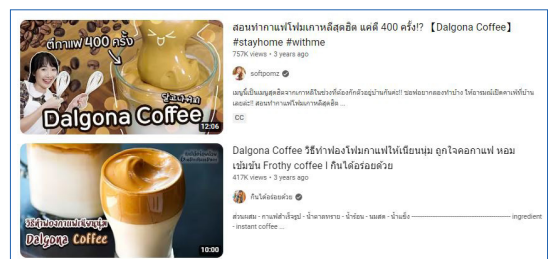
600 잔



370 잔



300 잔



온라인에서의 달고나 커피 유행

태국의 커피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

태국 소비자들의 높은 커피 수요에 따라 태국 정부와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커피 생산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시장 확대와 커피 제품 유통을 늘리기 위해 1억 3천만 평(268,211라이)의 농지에 새로운 품종의 커피 재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진흥부(DIP)에 따르면 태국은 여전히 연간 국내 커피 소비량 7만 톤 중 1만 톤 정도만 자체 생산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국 정부 차원에서도 커피를 재배하도록 권장하지만 충분한 국내 커피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태국의 농경지가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재배하기 위한 요소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재배 가능한 품종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의 고품질 커피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커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지 평수



1억 3천만 평
268, 211라이



태국 커피 시장 내 한국 커피 현황

한국의 커피는 아직 태국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달고나 커피와 커피 우유, 인스턴트 커피 등 커피음료와 커피 제품은 태국 내 타 커피음료에 비해 부드럽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태국 주요 유제품 생산 및 판매 기업인 “더치밀(Dutchmill)”이 한국의 “서울F&B”와 협업하여 출시한 ‘아라버스 커피’는 기존의 태국 커피음료보다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세븐일레븐 등 태국 내 주요 판매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태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 커피음료



Arabus Coffee



True Coffe

Insight

꾸준하게 성장하는 태국 커피 시장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태국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커피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성도 밝은 편이다.

한편 태국은 대부분의 커피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다양한 브랜드의 수입 커피제품 간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태국의 주 커피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커피를 찾는다.

이러한 태국인들의 소비 트렌드는 아직 비주류인 한국의 커피 음료제품이 태국 커피 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달고나 커피의 인기에서 실감했듯이 태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개의치 않고 항상 새로운 맛과 경험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태국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충분한 품질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특색을 살린 커피나 한국의 문화와 결합한 시즌 메뉴 등의 개발을 통해 태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